

부여·청양 활력타운 조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협업 공모 주거·생활인프라 결합 복합공간 정주여건 개선·인구 정착 기대

충남 부여·청양에 주거와 생활기반, 생활 서비스를 종합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이 최종 선정됐다.

부여군은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오는 2029년까지 근로자 행복타운을 조성한다. 근로자 행복타운은 양질의 정주환경 및 생활 서비스 복합 지원으로 청년·근로자 유입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이 목표이다.

세부 사업은 ▲임대주택 100호 및 공원 조성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일상돌봄서비스 운영 등이다.

청양군은 정산면 서정리 일원에 2028년까지 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세부 사업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24호, 임대아파트 160호 귀농·귀촌 체류형 주거공간 11호 조성 ▲탁구전용 훈련장, 다목적복지관 조성 ▲청년 창업지원,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등이다.

탁구전용 훈련장 건립을 통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정책과 041-635-4718



여름철 재해 도민 안전 총력

10월까지 세이프존 가동

충남도는 여름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안전지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 590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도는 '1마을 1대피소, 1훈련' 원칙에 따라 마을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1만 4000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파트너(대피조력자)'를 매칭해 대피체계를 강화했다.

마을대피소에는 표지판과 맞춤형

종합지도(출입로, 지형, 위험요소 등)를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 대응은 무더위쉼터를 유형별(공공시설,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외시설, 특정대상 이용시설)로 재분류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드론·폐쇄회로TV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예찰 시스템과 '스마트 충남통(마을방송, 온라인 소통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안전시설 설치 ▲상습침수 도로에 벗물받이 청소도구함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요소 점검 등을 병행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4

논산 강경미곡창고,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정부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선정
지역소멸 위기 민간 협업으로 대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
전시·카페·식음료 아카데미 운영

충남 논산시 강경미곡창고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기업·공익재단 등이 지역상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

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시행, 현장확인과 평가를 거쳐 논산을 비롯 부산 서구,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사업들은 지역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논산시는 강경읍에 위치해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인 미곡창고를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논산시는 빛섬, 이비가그룹, 건양대학교와 협력해 2028년까지 강경미곡창고를 논산의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이곳에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함께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강경구락부 조성 이후 커피인터뷰와 강경호텔 등의 민간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비가그룹은 강경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문화 힐링 공간 등의 기반을 구축한다.

빛섬은 김인중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설 내 힐링 공간 조성, 사업대상지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 홍보와 문화 시설 기반 구축을 맡는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시 내 ▲생활인구 증가 ▲전국적 문화·관광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가 높아 지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시설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정책과 041-635-2914
/국토교통부

도정 비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 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심폐소생술 교육장	2면
충남 100년의 맛	7면
이달의 문화행사	9면
청년창업 꿈과 도전	12면
도의원 인터뷰 '동행'	15면



모바일 티켓 한장으로 즐기는 충남 매력

충남 투어패스 판매 개시
관광지 등 가맹점서 이용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카페,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을 출시했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가맹점 300여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권은 ▲24시간(1만 6900원) ▲36시간(2만 1900원) ▲48시간(2만 6900원) 3가지 유형이며, 여전에 맞게 여행

지에서 관광지와 맛집, 카페, 체험시설 등을 마음껏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

통합권을 구매해 짜임새 있게 여행코스를 구성하면 시군 경계 없이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인 혜택으로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셈이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 구매는 흥보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거나 충남문화관광재단(☎ 041-630-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 '충남 투어패스'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투어패스 통합권 출시를 기념해 5월 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한다. 24시간 이용권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41% 할인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36시간·48시간 이용권도 각각 14%, 11%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별도의 미식투어 패스권도 개발해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책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딥레상품으로 투어패스 통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관광진흥과 041-635-3891



'4분의 기적' 일상 속 응급상황 대응력 UP

도청내 심폐소생술 무인교육장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충남소방본부는 도민 생명 보호 및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도청지하 1층에 '심폐소생술 무인 상설 교육장'을 신설·운영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돋는다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뇌 기능 회복률이 6배 이상 향상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무인 상설 교육장을 마련했다.

교육장에는 영상 콘텐츠와 연계한 실습 장비가 갖춰져 있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골든 타임'으로 불리는 '4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



충남도청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무인 상설 교육장에서 마네킹을 통한 실습을 하고 있다.

다 많은 도민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장에선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시청 ▲가슴압박 실습 ▲응급상황 대응 절차 교육 ▲자율 평가 등이 가능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자세와 적정 압박 강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무인 상설 교육장은 도청을 방문하

는 민원인과 공무원은 물론 인근 주민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이번 무인 교육장 운영으로 도내 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하고 생명 구조 능력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5

지적·공간정보 미래 경쟁력 키워

보령서 지적의 날 기념행사

충남도는 5월 21일 보령미드테마파크에서 '제48회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적의 가치와 미래 공간정보 행정 비전을 공유했다.

'국토의 시작, 미래를 여는 지적'을 주제로 지적·공간정보 행정의 현재를 되짚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연 이날 행사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발전 기여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직무 강의, 지적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도내 지적직 공무원 모임인 '양지회'가 도립대 토지행정과 재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씩 200만 원을 전달했다.

양지회는 1998년 첫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이번까지 총 8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적세미나는 시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6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이 논문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적 층량에 사용한 과거·현재의 장비와 드론 기체, 드론 공모전 수상작 등을 전시, 지적 기술의 변화와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적의 날은 1976년 5월 7일 지적 법령이 본격 시행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로, 최근 3차원 공간정보와 드론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해지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1

대천항 선박 좌초 예방…간출지 준설

수심 3m 확보 11월 완공

충남도는 선박 안전을 위해 '대천항 간출지 준설공사'를 한다.

이번 공사는 대천항 내 준설이 미실시된 간출지 수역 3만m²에서 약 10만m²의 토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는 11

월 완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한다.

간출지는 간조 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역이다.

그동안 대천항은 얕은 수심으로 선박이 걸리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준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부분준설 수심은 3m로 대천항 재

적어선(100톤 이하) 선박 수심을 감안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선박 좌초 예방은 물론 항만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나아가 향후 항만 개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항만과 041-635-4823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정보 한곳에

충남 청년 잡 플래닝 데이
현직자와 상담·면접 컨설팅

화와 채용 절차, 역량 요건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삼성에스디아이(SDI)·엘지(LG)생활건강·한화큐셀·나이키·카카오·오포·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유수의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아울러 회계사·관세사·변호사·법무사·노무사·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참여해 진로를 고민 중인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자기소개서 컨설팅, 인공지능(AI) 인적성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취업 서비스 존도 인기를 끌었다.

/청년정책관 041-635-3984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하게
안전성 협의체 구성·운영

충남도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충남 학교급식 안전성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한다.

협의체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학교급식 관련 시설을 점검해 식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

부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부서가 참여해 학교급식 시설 위생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유해 물질 검사 등을 추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학교 급식실 시설 점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생·안전 점검 ▲식재료 원산지 단속 ▲수산물 방사능 검사 ▲축산물 유전자 검사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시행 등이며, 결과는 통합 운영·관리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6

다시 하나되는 대전·충남

미래를 향한 힘쎈 도약을 위해
360만 충청인이
함께합니다.

기대효과



시도민 개인 차원의 혜택 극대화
생활 편의성 · 60분 생활권 구축 · 양질의 일자리 창출



SOC 조속 완성, 균형발전 촉진
충청내륙철도, 보령·대전 고속도로, 서산공항 등 집중 재원 투입



대전 과학기술 + 충남 제조 기반
충남의 산업 인프라 + 대전의 과학·기술 ⇒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



국내·외 자본 유치 + 기업유치 · 글로벌 시대 대학 뒷받침



농업인 기준 설정 + 농업보조금 체계적 관리 · 운영 위한 퍼스 · 운영 자율권 확보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등 실행력 확보 → 첨단 농업 발전



충남 해양자원 + 대전 첨단 과학기술 → 첨단 양식단지 + 수산산업 등 신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 문화 저변 확대



대전(축제, 스포츠) + 충남(문화유산, 해양레저) 연계 → 도시·농촌 관광자원 융합 → 생활인구 증가 및 부가가치 창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철갑상어 양식 산업에 새바람

도 수자연, 현장 체류형 교육
양식 기술 이전·어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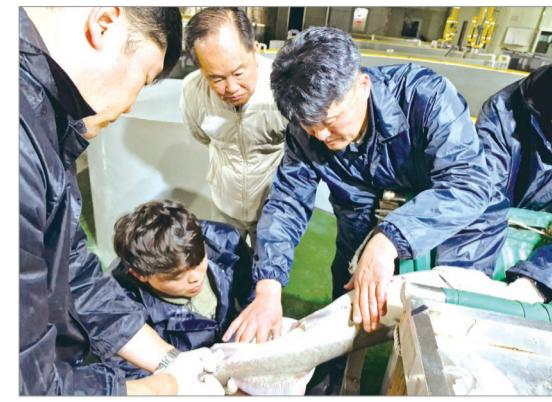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가 어업인에게 철갑상어 양식 등 체류형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이하 센터)는 2~4월 철갑상어 양식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 체류형 심화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철갑상어 양식은 그동안 주 수입원이 되는 캐비어 생산까지 7년 정도의 시간과 경비가 들고 소비시장이 크지 않아 산업적 발전이 미미했다.

최근 세포 재생, 혈관 재생, 피부 미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수컷 철갑상어의 정소에서도 나와 도내 양식 어가의 철갑상어 양식 기술 지도 문의가 늘었다.

센터는 교육 후 생산된 어린 철갑상어 5만여 마리를 교육생에게 인계하고 철갑상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했다.



철갑상어 양식 기술 교육 모습.

주요 교육 내용은 ▲어미 관리 ▲수술법을 통한 암수 선별 및 성 성숙도 검사법 ▲수정 및 부화 관리법 ▲어린 철갑상어 관리 등 철갑상어 양식 전반이다.

센터는 교육 후 생산된 어린 철갑상어 5만여 마리를 교육생에게 인계하고 철갑상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했다.

센터는 철갑상어 정소 내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진행되고 관련 산업에 활용성이 커지면 캐비어 생산을 위해 암컷만 양식 대상이었던 기존 철갑상어 양식 산업이 새로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85

도정게시판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 확대 운영

충남소방본부는 5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19외국어 통역 봉사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신규 통역 봉사자 2명을 위촉했다. (사진)

신규 통역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 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선 통역 봉사 중 겪는 어려움을 듣고 외국인 신고 증가에 따른 통역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신규 위촉 통역 봉사자는 각각 필리핀, 라오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로써 도내 활동 중인 통역 봉사자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통역 봉사를 늘려 통역 가능한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61

귀어 체험·일자리 정보 한눈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귀어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소 누리집을 개편했다.

연구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충남으로의 귀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 '귀어학교' 메뉴에 '한눈에 알아보는 귀어 지원 정책 및 기관' 게시판을 구축했다.

주요 기능은 귀어 생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연락처 및 누리집 주소 제공이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아이콘을 누르면 담당 기관과 바로 통화하거나 누리집 접속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 보령시에 있는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귀어인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가

2020년부터 운영해 온 기관으로, 귀어(희망)인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현장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8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접수

충남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사업'을 한다.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이하), 성인 전환기(12~17세), 성인기(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초기 양육 부담을 덜고 올바른 자녀 양육 방안을 제공하는 '영유아기 부모 교육'은 남서울 대 부설 아동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5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진로탐색과 독립을 지원하는 '성인전환기 부모 교육'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에서 운영하며, '발달장애인 특례 입학 설명회' 참가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부모교육'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각 수행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말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중점오염원 필수지역을 포함해 16개 부문 230지점이다.

분석 항목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류, 유류, 유기용제 등 23항목이다.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대상 지역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와 오염된 토양을 정화 및 복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63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 외부 링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충남도정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이렇습니다.



- 위 치 : 청양군 장평면, 부여군 은산면 일원
- 목 적 : 다목적댐 (홍수조절, 용수공급)
- 권역/하천 : 금강 권역 / 지천
- 총 저수량 : 59백만 m³

* 항후 기본 구상·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041-635-4471



지천 기후대응댐 Q&A

댐이 만들어지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 받고, 용수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댐 주변 청양, 부여에서 용수를 우선 사용합니다.

지천댐이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주변 개발이 제한되나요?

공장 입지 규제 등 댐으로 인한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하면 댐 하류지역은 물폭탄을 안고 사나요?

보현댐, 영주댐 등의 하류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 후 홍수 피해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청양, 부여지역도 홍수와 서해바다 만조로 금강수위가 높아지면, 지천 상류 빗물을 자체시켜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호증개 등 국가 유산이 사라지나요?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호증개 등 보호종을 잘 보존하겠습니다.

유사 사례

- 농어촌공사 백곡저수지(충북 진천군) 둑 높이기 사업시 미호증개 서식지 파괴 우려가 있었으나, 대체서식지 조성, 치어방류,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미호증개를 보호

댐이 건설되면 농작물이 인가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요?

인근에 있는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농작물 안개 피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천댐은 수면적이 예당호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가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혹여, 인가피해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구분	저수용량	수면적
예당저수지	4,700만톤	10.89㎢
지천댐	5,900만톤	4.13㎢

오늘의 결심, 미래를 바꾸는 힘!

나를 위한 창업 수업,

6월 동네
창업학교
교육일정 2일과정(총 12시간)
6.17 화 - 6.18 수



선착순 모집
~6.10(화) 까지

충남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명
(미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신청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경영지도 ▶ 교육 ▶ 신청
www.cnsinbo.co.kr/education.html

생활업종(숙박, 음식, 도소매, 서비스) 창업단계 맞춤형 실무 교육

구분	시간	과목명	강사	장소
1일차 6월 17일(화)	9:50~10:00	동네창업학교 소개	재단 직원	실시간 온라인 (ZOOM)
	10:00~12:00	제품 서비스 디자인	박상길 박사	
2일차 6월 18일(수)	13:00~15:00	상가 임대차 계약	이용훈 변호사	
	15:00~17:00	상권 입지 분석 실무	곽병탁 지도사	
2일차 6월 18일(수)	10:00~12:00	인테리어 계약 실무	남강현 대표	실시간 온라인 (ZOOM)
	13:00~15:00	세무	배성훈 세무사	
	15:00~17:00	SNS 마케팅	신성수 마케터	
	17:00~17:30	청년지원정책 안내	재단 직원	

충남 생활업종 예비창업자 및 2024년 이후 생활업종 창업자만 해당

① 창업 컨설팅 연계 지원

- 상권분석, 사업타당성, 예상 손익 계산 등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보증 우대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수료시, 최대 5천만원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없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없습니다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재단 제 규범 등에 따라 보증지침이 불가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맞춤형 숲' 가꾼다

올해 1만 7136ha 대상
목재 생산·자연재해 예방

충남도는 올해 1만 7136ha 규모의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빛이 잘 드는 숲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어린나무와 다양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조림지 가꾸기 1만 4113ha ▲어린나무 가꾸기 1283ha ▲경제림 가꾸기 612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382ha ▲공익림 가꾸기 746ha이다.

도는 전체 산림의 70% 정도가 수령 30년 이상 된 장령림으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숲 내부 과밀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하락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림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공익림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류를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가지치기와 숙아베기를 통해 산불 연료가 수관을 따라 확산되는 '불길 사다리'를 차단하는 등 예방형 관리 모델을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78명을 재정 일자리로 채용했다. 이들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과 '숲가꾸기 패트롤'로 나뉘어 ▲산림 현황 조사 ▲사업 이력 관리 ▲생활민원 대응 ▲위험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한다.

숲 가꾸기는 산주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동의하면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산림부서,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맞춤형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2



사진 원쪽부터 입장군 소방교,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 박기남 소방교.

생명 구한 구조대원 '라이프 세이버'

박기남 소방장·임장군 소방교

을 구조장비로 안전하게 구조한 바 있다.

또 여러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절한 조치로 구하는 등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라이프 세이버는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구조대원 2명에게 라이프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라이프 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박

기남 소방장과 입장군 소방교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해 매몰된 요구조자 2명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충남, 전국장애인체전서 3위

육상 10연패·디스크골프 5연패

126개(금45, 은50, 동31)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 10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디스크골프 종목에서도 5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조정 종목은 종합 2위를 기록했으며, 농구, 보치야, 역도, 탁구 4개 종목에서는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충남장애인체육회 041-634-7621



"우리 어른됐어요" 전통성년식

혜전대학교와 흥성문화원은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19일 혜전대 간호학술관 대강당에서 '전통성년식'을 개최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 성인이 되는 2006년생 대표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성년식을 진행하고 성년이 됨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전통성년식 순서인 부모 입장, 상견례, 삼가례, 초기례, 재가례, 삼가례, 기관례, 초례의식, 명자례, 성년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혜전대학교 041-630-2454

탄소 흡수 '바다숲' 민간기업 동참

〈LX판토스〉

잘피 등 이식·환경정화 활동
올해 태안 학암포 바다숲 조성

충남도가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탄소 중립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선다.

도는 5월 16일 태안군 개목항어민복 지센터에서 LX판토스, 태안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기업 바다숲 조성사업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탄소흡수원

획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잘피(거머리말)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합친다.

LX판토스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 비용 및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프로젝트의 행사 일환인 잘피(거머리말) 이식·체험 행사를 기획한다.

이날 도와 LX판토스, 태안군, 도민 등 50여 명은 업무협약 후 의향해수욕장 일원에서 잘피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도는 2008년부터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을 설치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령 호도 88.19ha, 보령 삽시도 79.3ha, 홍성 죽도 4ha, 태안 파도리 2ha, 보령 장고도 2ha, 태안 의령리 2ha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안에 태안 학암포 8.4ha, 2027년까지 보령 외연도 156ha에 대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과 041-635-2774

여름맞이 숙박 할인쿠폰 선착순 제공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5월 28~30일 5만 원 할인권

충남도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5만 원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

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수요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할인쿠폰은 7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에 대해 도가 2만 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3만 원을 지원해 총 5만 원 할인으로 제공한다.

발급과 예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번가, 옥션, G마켓, 여기어때 등 19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할인쿠폰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

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며,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여행 계획이 있다면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콜센터(1670-3980)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진흥과 041-635-3886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다같이 #땡겨요

충청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

충청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은 뭘까요?
충청남도와 민간배달앱 운영사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배달앱 종결수료 부담은 낫추고
소비자에게 경제 혜택을 제공하는
최한배달앱 땡겨요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땡겨요, 뭐가 다른까요?

사장님 혜택 <p>2% 2.0%의 낮은 종결 수수료</p> <p>3無 (광고비, 월 고정료, 입점수수료) 입점 가능!</p> <p>당일매출, 당일정산 가능!</p>	소비자 혜택 <p>지역상품권으로 최대 10% 할인혜택 (공주, 부여 제외)</p> <p>첫주문/재주문 할인쿠폰 최대 1만원 지급</p> <p>매월 11일, 22일 땡데이 파격 프로모션 제공</p>
--	--

가입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소비자는 혜택, 사장님은 이익, 지역경제는 활력!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따뜻한 소비
지금 시작하세요!**

Google Play Apple Store에서 땡겨요를 검색하세요

땡겨요 고객센터 ☎ 1661-5489

서산 대산항서 국제크루즈 두 번째 '뱃고동'

2300명 승객싣고 19일 출항
6박 7일간 대만·일본 여행

서해에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가 다시 한 번 바다를 가르며 출항했다.

충남도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 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며 5월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타세레나호는 전국 각지에서 온 2300여 명의 승객을싣고 서산 대산항을 출항했다.

코스타세레나호는 6박 7일 동안 대만 기륭,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5월 25

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날 승객들은 삼길포항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해 출국 수속을 진행했다.

쉼터 및 주차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 도와서산시는 충남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홍보하면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했다.

외국인 승무원을 대상으로는 대산항 인근 주요 관광지인 한우목장 탐방과 해미읍성에서 공연 관람 및 체험을 포함한 시티투어를 진행해 충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으로,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한다.

부대시설로는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크루즈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등 충남 서해안을 전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 호.

예산군, 황새 복원 10년…현재 180마리 야생 생존

예산·서산·태안·동북아 등 서식
을 70마리 탄생 250마리로 늘 듯



4월에 촬영한 예산군 광시면 황새 등지 모습.

하려는 노력 또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황새 500~1천 마리 야생 서식을 목표로 유전적 다양성 관리, 서식지 복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또 9월 6일 예산황새축제 개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황새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황새공원 연구팀은 "올해 등지에서 태어날 새끼 황새가 70마리 이상일 것으로 예측돼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250마리 이상 서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속도라면 향후 10~20년 내 황새 복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예산군

의병,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독자투고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자연이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기이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6.10 만세운동, 6월 25일 한국전쟁 등 이 중에서도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의병의 날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의병(義兵)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무장조직으로, 이름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역사이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이다.

의병의 날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활약이 두드러졌던 괴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임진왜란, 구한말 외세에 대항하여 싸운 의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해 수 없이 많은 의병이 일어났다. 저물어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조선이 유구히 흐른다면 의병,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의병을 역사적 소재로 한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금의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위기에

맞서 외세와 싸운 조선시대 의병들의 희생정신 때문일 것이다. 전쟁과 침략 등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국가가 없을 경우에 더욱 의병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그들에 대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2025년 의병의 날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김창양(경기도 남양주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cnnews@korea.kr
문의: 041-635-4932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태안, 주꾸미 산란장 23만 개 설치

파도리·학암포 등 7개 해역
5월까지 산란 시설물 설치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설치하는 모습.

설치를 마무리해 어미 주꾸미의 산란을 유도한 뒤 8월까지 시설물 유실 방지를 위한 관리선 운영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필요 시 주꾸미 산란상태 및 산란장 효과를 조사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공급거점 조성과 주요 어종의 안정적 공급, 수산자원 증대로 인한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

행복한 맛 특별한 숙소

당신이 아는 충남의 대표 맛집과 숙소를 추천해 주세요!





열기구.



수륙양용버스.

육지·하늘 넘나드는 부여 여행

**백마강 따라 즐기는 이색 관광
수륙양용버스·열기구 체험 인기**

백제 고도 부여군이 역사문화 자원과 더불어 독특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오직 단 한 곳! 부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바로 수륙양용버스와 열기구 자유비행 체험 덕분이다.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을 모두 넘나드는 이색적인 버스다. 백제 문화단지에서 출발해 천정대 주변 도로를 따라 달리다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백마강 수상에 진입한다.

짜릿한 스릴과 함께 낙타암과 고란사, 천정대, 부소산의 풍경을 감상하며 해설사의 백제 역사를 곁들인 수상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부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기구 자유비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시간 정도 비행하는 열기구는 백마강을 따라 부여 시가지 상공을 비행한다.

탑승객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자유비행 열기구는 튀르키예나 라오스에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부여의 하늘 위에서 멋진 일출과 구름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액티비티는 관광지로서의 부여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특히, 수륙양용버스는 가족 단위에, 열기구 비행은 로맨틱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 두 가지 모두 인기가 좋아 사전예약은 필수다.

오로지 부여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수륙양용버스와 열기구를 경험하러 부여를 방문해보면 어떨까?

/부여군

‘천안 K-컬처박람회’ AI·실감콘텐츠 접목

6월 4~8일 독립기념관서 개최
관람객 중심 체험형 박람회로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인공지능(AI),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며 한층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with MyK FESTA’가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천안 K-컬처박람회는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에 꽂 파우다’를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 산업교류, 디지털 콘텐츠 등이 준비됐다.

주최측은 전시 콘텐츠를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각 전시관에 인공지능(AI), 실감미디어, 증강현실(XR), 인터랙티브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주제전시, 푸드·웹툰·뷰티 산업전

시관, 한글존으로 구성됐던 기존 전시 콘텐츠에 영상콘텐츠·게임 산업전시관을 새롭게 추가하고 한글존은 한글 산업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뷰티관에서는 AI 기반의 퍼스널 뷰티 제품 추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관에는 AI 기반의 영화 제작 체험프로그램인 ‘인터랙티브 AI 영화’도 준비된다.

게임관에서는 AI와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리얼리티 게임 존, 보드게임존, 인디게임 체험 부스, 3D 캐릭터 모델링 체험존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진행된다.

웹툰관에서는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림이 생성되는 웹툰 제작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 공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K-OST

콘서트’, 중장년층을 위한 ‘K-레트로 공연’, 옛 감성을 자극하는 ‘제시봉 콘서트’,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SBS ‘웬디의 영스트리트’ 라디오공개방송, 어린이를 위한 ‘티니핑 뮤지컬’ 까지 폭넓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편, 천안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 앞서 국내 AI작곡 1세대 작사가 박노아(남·45), 2025 코리아한복 미인선발 대전 진(眞) 수상자인 이희빈(여·23), 네이버에서 ‘일진담당일진’을 연재 중인 웹툰작가 Grimzo(남·33)를 천안 K-컬처박람회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K-컬처 박람회 홍보와 산업 컨퍼런스, 웹툰 전시관 등에 참여하게 된다.

/천안시

청양, 민간 주도형 테마 투어로 활력

비건부터 전통주까지
지역자원 활용한 체험

청양군이 민간 주도형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천장·장곡·칠갑 3대 권역 관광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 투어 프로그램은 ▲들숨여행(청양구기자 훌리데이) ▲전통주투어 ▲비건투어 ▲골목 투어로 청양의 대표 특산물부터 원도심 상권까지 지역 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달부터 9월까지 총 20회 운영될 예정이며, 이벤터스 홈페이지(<https://event-us.kr/cyoutdure/event>)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들숨여행’은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를 주제로 한 건강한 미식 여행



청양군 들숨여행 참가자들이 구기자비누를 만들고 있다.

으로 구기자 시음, 구기자 발사믹 체험, 구기자 족육 등 중장년층의 취향과 건강 니즈를 반영한 구성이 특징이다.

‘전통주투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빚기, 소믈리에 체험, 전통주 페어링 등을 통해 전통주 문화와 청양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미식형 프로그램이다.

‘비건투어’는 생명 존중과 지속가능

성을 주제로 비건쿠킹클래스, 플로깅, 유기농가 방문 등 자연과 공존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MZ세대 및 웨니스 여행객을 겨냥한다.

‘골목투어’는 청춘거리 일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당일형 투어로 미션형 골목 탐방과 상점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양군

조선시대로 낭만 가득 밤마실 떠나 볼까?

충남에서 충전해! (27) 아산 외암마을 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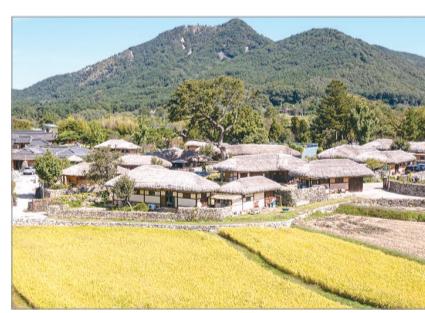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낮에는 제법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가올 폭염의 계절을 예고한다. 역설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제격인 여행이 있다. 야행(夜行)의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 여름의 길목에서 충남 ‘야행축제’를 대표하는 ‘아산 외암마을 야행’이 밤마실의 낭만과 추억의 세계로 초대한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아산 외암마을 야행에서 비우고 채우는 여유와 활력을 충전해 보자.

▲아산 외암마을=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외암마을은 600년의 전

통을 자랑하듯 조선시대의 역사와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조선 후기 상류층 가옥과 서민층 가옥 60여 채가 보존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다. 건재고택,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참봉댁, 송화댁, 교수댁 등 택호가 지어진 옛 가옥이 총 5.3km에 달하는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다. 안채, 문간채, 사랑채 등 조선시대 살림 가옥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역사 교과서의 진수를 보여준다. 평상시에도 조선시대 시장인 저잣거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고 20여 가지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행 프로그램=‘빡투더 조선’을

주제로 외암마을의 고택과 골목을 무대로 야화, 야설, 야시, 야사, 야식, 야숙, 야로, 야경 등 총 8야(夜) 테마에 따라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조선시대 혼례 체험인 ‘예안 이씨의 혼례날’, 외암마을 구석구석을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외암국가유산 투어’, 조선시대 고택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고택 숙박체험’, 솔밥을 직접 지어나눠 먹는 ‘조선 솔밥 한상’, 조선과 외암의 역사를 골든벨 퀴즈로 풀어보는 ‘장원급제! 조선 골든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 건재고택 앞마당에서 열리는 퓨전공연 ‘조선 힙스터’와 민속관 소무대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무대, 저잣거리 입구에서 진행되는 전통 엿장수 공연 등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조선놀음방’, 병사



외암민속마을 전경. 사진/아산시청



외암마을 야행 프로그램을 즐기는 관람객들.

체험 콘텐츠인 ‘외암 징병방’, 조선시대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 전통 간식을 즐기는 ‘한입 간식’, 조선손맛’, 공연자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6인의 조선 이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펼쳐져 즐거움을 더한다. 외암마을의 밤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불빛 따라 걷는 외암길’은 밤마실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필수 코스.

▲아산 관광 명소=아산은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많다. 이왕 나선 나들이, 추억을 더하려면 외암마을 주변의 관광지를 찾아보는 여유를 가

져 보자. 천년고찰인 봉곡사 주변으로 이어지는 힐링 명소 ‘천년의 숲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신정호 관광지’, 산 정상에 올라서면 서해 바다, 삽교천, 아산만 방조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인산자연휴양림’, 365일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는 ‘세계꽃식물원’, 남유럽풍의 건축물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지중해 마을’ 등 특별한 여행지가 즐비하다. 여행의 마무리는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등 3대 온천 명소에서 온천욕으로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 보자.

/이용 스토리미디어 대표



충남 100년의 맛

(12) 해미읍성과 서산의 음식

조선시대 3대 읍성 주변서
국물·디저트·역사 한 번에



해미읍성

계국지에서 교황빵까지…서산 ‘한입 순례’

충남 서산의 명소 중 한 곳은 조선 시대 군사 요충지이자 여려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해미읍성이다. 1421년에 축조된 이후 600년 넘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 시대 3대 읍성으로 꼽힌다.

석성(石城)인 해미읍성은 성벽 높이가 약 5m, 성곽 길이는 1800m이며, 성 내부는 6만여 평에 달한다. 특히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

해미읍성의 정문은 진남문(鎮南門)이다. 이순신 장군도 10개월간 근무를 했던 읍성 내부로 들어서면 동헌 및 객사 등 조선 시대 관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당시 무기 모형이 전시돼 있고 가볍게 전통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공간과 휴식 공간도 있어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곳을 찾았다. 이곳이 천주교 박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866~1872년 천주교 박해 때 해미읍성 안에서 무려 1000명의 충청지역 신자가 이곳으로 끌려와 갖은 고문 끝에 순교했다. 교황청은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21년 해미순교성지를 국제성지로 선포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해미읍성축제가 열리는 곳이며, TV드라마 ‘미스터선샤인’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박속낙지탕도 대표 음식

해미읍성 주변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된 빵이 있다. ‘교황빵’, 이른바 ‘키스링(Kiss Ring)’이라 불리는 이 빵은 교황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간식으로 제공했던 빵으로 원형 모양의 패스츄리다. 교황이 이 빵을 먹을 때면 입술에



◀교황빵



▲서산 우럭젓국

대고 키스를 한 뒤 먹었다 해서 붙은 것으로, 서산특산물인 육쪽마늘이 사용됐다. 곁으로 보기엔 그저 빵이지만 마늘 향이 은은하다. 해미읍성 안과 밖 두 군데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해미 호떡’이다. 최근 방송에서 소개된 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슬라이스 등 견과류, 흑설탕으로 버무려 속을 채운 뒤 식용유가 아닌 마가린으로 튀긴 게 특이하다.

이 밖에 읍성 진남문 앞에 있는 곰탕, 설렁탕, 소머리 수육을 파는 곳도 유명하다. 한우 소머리를 깨끗이 손질해 가마솥에서 5시간 동안 기름을 걷어 가며 끓인다. 진하고 깔끔하며 고기는 쫄깃하다. 식당 내부에는 전직 대통령과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방문한 사진이 걸려있다.

서산을 대표하는 진정한 토속 음식은 ‘우럭젓국’과 ‘계국지’다.

우럭젓국은 깨끗하게 손질해 반 건조한 우력을 대파, 무, 파, 두부, 흉고추 등을 넣고 끓이면서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음식이다. 꾸덕꾸덕한 우력의 식감과 맑고 시원한 국물 맛으로 오랫동안 서산 지역민의 사랑은 물론 입소문 나면서 관광객도 호기심으로 찾는 음식이다.



해미호떡

계국지는 계장을 묵은지와 함께 끓여 낸 음식으로 서산의 시그니처 음식이 됐다. 먹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쿰쿰한 맛을 완화시킨 곳도 많다. 이밖에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박속과 낙지를 함께 끓인 ‘박속낙지탕’도 태안과 서산지역을 방문하면 검색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음식이다.

가봐야 할 명소들

서산의 또 다른 관광명소는 지난해 개장한 ‘서산 한우목장 웨딩 산책로’다.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이곳은 이른바 ‘김종필(전국무총리) 목장’으로도 불리는데, 박정희 정권 때 ‘잘 나가던’ 김 전 총리가 1969년 스위스의 방목형 목장을 보고 조성한 축산기지다. 지금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이곳에는 씨수소 100여 마리 등 한우 약 3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정액을 공급하는 씨수소는 우량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 마리 당 20억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산시는 지난해 이곳에 2.1㎢ 규모의 데길과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해 서산의 또 다른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다. 드넓은

초지와 목가적인 풍경이 어우러지면서 ‘서산의 알프스’로도 불리는 데 산책로 경사가 완만해 1시간 이내면 무리 없이 둘러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축사에서 지내던 수천 마리 소들이 광활한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다.

또 다른 명소는 개심사로, 서산을 찾는 이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개심사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 벚꽃이 피는 곳으로, 청벚꽃 외에도 흰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옥색, 적색 등 오색의 겹벚꽃들로도 이름난 명소다.

서산의 봄 여름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운산면의 유기방 가옥도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유기방은 충남민속문화유산인 고택에서 거주하며 관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의 이름이다. 유기방 어르신은 가옥 뒤 울창하게 자란 대나무 대신 수선화를 심기 시작해 지금은 2만坪이 넘는 가옥 주변의 꽃밭을 관리하고 있다. 수선화는 원래 물가에서 주로 자라는데, 이곳에서는 집 뒷편 동산 울창한 솔밭 그늘에서 수선화가 피어난다.

6월에는 서산에서 다양한 축제도 열린다. 팔봉면에서는 감자 축제가, 그리고 6쪽마늘 축제도 열린다. 지곡면 왕산포구에서는 갯마을 축제도 예정돼 있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충남도정신문 5월 도민참여 이벤트

충남도정신문 1031호, 1032호의 7면 **<충남 이면 충분해>**에 소개된 관광지 중 1곳 또는 충남의 관광지 1곳을 방문해 인증샷과 방문 후기를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줍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공주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
당진 면천읍성, 신리성지, 삽교호관광지,
왜목마을
기타 충남도내 모든 관광지

▶이벤트 기간 5월 2일(금)~5월 31일(토)

※ 6월 중 당첨자 개별 안내



서산한우목장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

이재인의 물 따라 길 따라

(7) 새바위 포구

무한천 따라 열렸던 포구의 길
바닷길 통해 외래 문화 전파

작은 마을마다 이야기 쌓여
신암·여사울에 남은 발자취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부근.
무한천과 삽교천이 합쳐지는 구간이다.



강이 멈춘 곳에 시간이 머문다

'정치인들은 강물도 없는데 유권자들에게 다리를 놓겠다고 한단다' 드골의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후세대에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을 경계한 교훈일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물이 있든지 없든지 자동차는 굴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를 설치해야만 목숨도 유지할 수 있다. 이 다리를 이용하여 군용트럭도, 대전차도, 군수물자도 수송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강을 건너야 행운도 온다. 거기에는 민족도 보호되고 사랑도 샘솟는 영토가 이룩된다고 했다. 물이 있든 없든 한 단계 건너야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공자께서도 강물의 흐름을 보고 무상한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 나아가는 곳이 바야흐로 포구다. 포구는 '가장 힘이 센 갈색 빛깔의 신(神)'이라 했다고 A·E 로빈슨/토만 바도로우가 말했다. 물의 힘이 곧 포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

오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새바위 포구다.

새바위 포구는 현재 주사로 270번지 앞으로 추정된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밀양백씨 제14조 대로, 박안행 당진 현감까지 역임한 분의 묘소 옆이다. 밀양백씨 후손들에 의해 전해오는 설이다. 이 묘소가 현장 증거로 새바위 포구가 생존해 있는 셈이다. 훌륭한 어른이 잠자고 계신 묘소 때문에 우리는 옛 포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박안행 현감의 자제분들이 목사를 역임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한 분은 '홍주목사', 또 다른 분은 '상주목사'까지 했으니 박씨 문중의 자랑이라 하겠다.

추사 선생, 후대 박씨 종친과 더불어 예산의 인물로 신계영(1577~1669)

선생이 있다. 이분은 정립의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뒤 속환사(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을 돈을 주고 찾아오던 일을 맡아보던 사신·1637), 사은사(조선 임금이 중국의 황제에게 사은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1652)를 맡았으며 나주목사, 강화 유수, 전주부윤(1638)을 역임했다. 93 세까지 사셨는데 16수의 풍류 시조가 전해지고 있다.

이분의 시 한편을 읊겨보기로 한다.

깊은밤 찬하늘 북두성 누웠거늘
공부방 아이들 글 읽는 소리 들려오네
늙은이 귀 기울여 즐겁고 즐거워라
손주들 학업 대성할 것을 점 칠만 하네.

천주교 신앙의 메카

예산은 인물의 고장이다.

흔히 홍성군을 인물의 고장이라 하여 역사적 인물의 축제를 해마다 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홍성의 인물도 대한민국의 튼튼한 자원이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한천을 따라 이리저리 꾸불꾸불 물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이 모이듯 옹기종기 마을을 이룬다. 마을의 실개천이 모여 시냇물이 서해를 향한다.

냇물을 따라 전설이나 민담이 주저리주저리 열리는 곳이 바로 무한천이다. 이 무한천 물길따라 순수한 인심과 경건한 신앙이 자리한 것이 특이하다.

예산에 천주교가 유입되고 신앙이 전파된 것은 포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여사울 나루. 공소 나루라는 명칭도 천주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며 자리 잡은 포구의 이름이었다.

특히 이존창(1752~1801)의 영향이 컸다. 이존창은 서울 유학 중에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에 전도되었다. 공부를 마치고 여사울 고향으로 귀향한 그는 전도에 힘써 교세를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열정적인 그의 전도는 마침내 고향을 비롯하여 인근에 가까운 마을까지 대략 300여 가구가 입교되었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400년 가까이 운전히 지나간 역사를 품에 안고있는 보호수가 아산만을 막으면서 논으로 변해버린 새바위 포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새바위 포구에서 조금 내려가면 무한천과 삽교천이 합쳐지는 두물마리 즉 지금의 지명인 합덕이다.

신암면 신종리에 있는 여사울 성지는 천주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뜻자리'로 불린다. '여사울'은 서울→서울에 갈을 여(如)를 써 '기와집이 즐비해 마치 서울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산천이 곱고 아름다우면 풍속도 순화되어, 어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마련이다. 기름지고 바탕이 좋은 땅에서 인심이 나고, 윤리가 빛을 더하는 고장이 바로 예산이라는 점이다.

예산이 천주교의 발상지가 됨으로서 우리가 외래문화와 사상이 짙고 근대 문화와 신문화가 자연 융합되어 선진세계로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그 실례로 예산에서 종교

리 실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물길 따라 들어온 문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육해공(陸海空)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나아간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육로가 제한된 교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배길이 훌륭한 교류와 소통의 수단이던 시대였다.

자연 천주교가 바닷길로 유입되고 그들의 실용적인 문화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의 신장도 바다와 강이 남긴 문화 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삶이란 무엇이든지 그 냇가와 보상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진리이기도 하다.

오늘날 예산을 돌아보면 '신암'이라는 땅은 축복의 성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당대의 그 잔혹한 탄압과 속박은 필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 그 자체였다. 그 과정을 겪으며 오늘날 신성한 순교의 땅인 천주교 성지로 우뚝 섰다. 이 곳은 또 천주교 교구장인 '다블뤼' 주교가 순교하기 전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물길을 통한 순교자들을 열거하면 배나드리 포구의 인언민, 대흥포구에 인접한 곳은 복자 김정득이 태어나고 침수된 곳이기도 하다. 무한천 옥계포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락골 성지'와도 연결되는 신앙지도가 완성된다.

예산과 당진의 광활한 들판, 무한천의 넘쳐나는 물길은 기름지고 축복의 땅이기도 했다. 하지만 1910년 일본의 한일합방으로 인해 수확한 농산물은 이 포구들을 거쳐 일본으로 수송되는 수난의 아픈 역사가 36년간 지속되기도 했다.



이 재인 소설가

충남 예산 출신 소설가로 베스트셀러인 『악어새』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경기대 국어국문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충남문학관장.

애국정신 가슴 깊이 되새기자

박물관장과 떠나는 역사여행

⑬ 예산 충의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독립운동가 윤봉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의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이름만으로도 굳센 절개와 높은 뜻이 느껴지는 윤봉길 의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소로 가보려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은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저기 충의사 입구가 보이는군요. ‘충의사’, 이름부터가 이미 단호하지 않나요? ‘충성’과 ‘의리’, 이 두 단어는 윤봉길 의사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입구를 지나 ‘충의문’을 통과하면 본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당 안에 자리한 윤 의사의 영정 앞에서, 스물다섯, 젊디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스스로 생을 던진 결단 앞에서, 우리 모두 잠시 묵념하시죠.

충의사를 뒤로하고,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흥겨운 공원으로 떠나던

날 아침 김구 선생과 바꿔 찾던 낡은 스위스제 회중시계, 거사를 앞두고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일본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서 사형당할 때 윤봉길 의사의 묶어 세웠던 형틀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육필 일기와 생전에 사용하던 일상용품 등,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의 보물입니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장부로서 집을 나섰으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의 글귀는 지금도 우리 가슴에 깊이 내려앉습니다. 그는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고민의 결실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흥거우 공원의 도시락 폭탄 의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곳 여러 유물 중 윤 의사가 월진회를 창립하며 직접 쓴 ‘월진회 창립 취지서’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윤 의사의 교육과 농촌 계몽 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는 총 대신 펜을 들고, 민중의 의식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단지 폭탄을 던진 의열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상가였고, 교육자였으며, 실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일생이 참 알기 쉽게 기념관 전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어, 저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매년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이 6월까지 열리고 있네요.

충의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그리고 ‘기억상자’ 전시까지. 오늘 하루의 짧은 여정이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울림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윤봉길 의사가 남긴 그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역사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충의사.



의병기념관.



사서들의 서재



미키7/에드워드 애슈턴/황금가지
/2022년

‘존재’의 의미

『미키7』은 먼 미래 우주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SF 소설이다.

죽을 때마다 복제되어 다시 살아나는 ‘소모용 인간’ 미키는 말 그대로 “죽어도 되는 사람”이다. 위험한 임무를 대신 맡고, 죽으면 새 몸으로 돌아온다.

미기는 얼음 행성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은 팀에서,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하고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모두가 그를 도구처럼 여기고, 미키 스스로도 처음엔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기억은 유지되지만 고통도, 외로움도, 살아 있는 동안의 감정도 그대로 다시 겪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기계처럼’ 여긴다.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 효율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상징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설정을 통해 강력하게 외친다. “사람은 대체될 수 없다.”

그러던 중, 우연한 사고로 두 명의 미키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미키가 두 명이 되는 사건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기억도 같고 성격도 같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갈등은 단순한 스릴러 요소를 넘어, 자아와 인간성을 심층적으로 파고든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우리 사회와 무섭도록 닮아 있다는 것이다.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태도. 『미키7』은 세상이 사람을 쓸모로만 판단하는 시선을 비판하며, 사람은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아름 사서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문화 행사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랑의 시간>

기간 2025.05.29. (목)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41-856-0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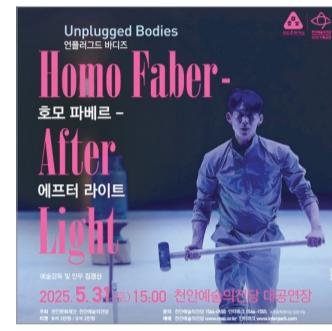
전제덕X차인홍 <미라클 콘서트>

기간 2025.05.30. (금)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41-852-0858



챔버인상주의 10주년 음악회

기간 2025.05.30. (금)
시간 19:3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010-6485-9747



무용 <호모 파베르-에프터 라이트>

기간 2025.05.31. (토)
시간 15: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김응수&첸 <시간의 향기>

기간 2025.04.21.(월)~06.01.(일)
시간 24시간 운영
장소 천안 갤러리 허송세월
문의 010-2593-0123



연극 <사빠디>

기간 2025.06.12.(목)~15.(일)
시간 토 2, 4:30, 일 7시/일 2, 4:30분
장소 아산아트홀
문의 070-8728-1215



하현우X차지연 <드림 콘서트>

기간 2025.06.13.(금)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41-852-0858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기간 2025.06.13.(금)~14.(토)
시간 금 19:30/토 15: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기간 2025.06.14.(토)~15.(일)
시간 15:00
장소 당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350-2911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첫 상위권 달성과 가족정책 방향성 Q&A

Q. '지역성평등지수'란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각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고용, 권한분배, 교육, 건강, 가족·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충남이 이 지수를 높인다는 것은 곧 남녀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뜻이며, 이는 가족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직결됩니다.

Q. 충청남도의 현재 성평등 수준은 어떤가요?

충청남도가 여성가족부의 '2025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에서 첫 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표별로 연말 기준 정보(데이터)를 분석·평가해, 전국 17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중상·중하·하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이번 성평등지수 측정 상위권에는 충남과 서울, 대전,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풀케어 정책을 통한 돌봄 강화, 광역기능의 충남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창업지원기관·대학과 협업, 여성 창업 및 직업 교육 훈련 실시, 지역 맞춤형 도민 양성평등 교육·홍보 등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남도는 특히 돌봄 분야 전국 1위, 소득 분야는 최근 3년 간 전국 6위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교육·의사결정 분야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Q.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지역성평등지수를 어떻게 높이나요?

가족정책은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1인 가구·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 정책은 모두 성평등을 향한 실질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가족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면, 고용·돌봄·사회참여 등 지수 평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젠더 퀴즈

다음의 글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십시오.

- '2025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등급을 받았다. ()
- '2025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돌봄 분야 전국 1위, 소득 분야 최근 3년 간 전국 6위를 달성하였다. ()
- 가족정책은 성평등 실현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

/안세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팀 연구위원

참고 자료 : 충청남도 보도자료(2025.4.17.), '지역성평등지수 첫 상위권 달성'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

문제: 1. O, 2. O, 3. O



"이 나이쯤 다 그렇다?" 갱년기 증상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의료원 칼럼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려요. 밤마다 식은땀에 자다가 몇 번이나 깨요. 괜히 불안하고 짜증도 잣아졌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데, 그냥 참고 넘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50~60대 여성 환자들의 고민이다. 대부분은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 나이쯤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갱년기는 단순히 한 고비 넘기면 괜찮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민감한 전환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럴 나이'가 아니라 '주의할 나이'이다

갱년기는 여성의 경우 대체로 폐

경 전후인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고, 남성은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호르몬 변화의 시기이다. 여성은 난소 기능 저하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며, 이로 인해 안면홍조, 발한, 불면, 우울감, 관절통,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남성 또한 무기력감, 성욕 감퇴,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여타 질환과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갱년기로 오인된 증상이 실제로는 갑상선 질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예컨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은 단순 갱년기일 수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부정맥의 신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갱년기 이후, 건강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한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에 그치지 않는다. 이 호르몬은 혈

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억제하며, 뼈의 밀도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심근경색, 협심증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 또한 높아진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의 압박 골절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갱년기 증상을 나아 턱이라 여기며 참고 넘기지만, 이는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우울감과 불면증은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기 쉽고, 이는 곧 사회적 고립감,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갱년기 증상이 심할 경우 호르몬 대체 요법, 항우울제, 수면 보조제

등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약물 외에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 등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 내 몸을 점검할 골든타임이다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의 한 과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이 켜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버티기보다는 조기 진단과 개입이 필요하다.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 상태를 확인하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홍성의료원 내과에서는 갱년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내분비질환, 대사질환, 심혈관질환 등 동반 질환도 함께 진단하고 관리하

고 있다. 갱년기 증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40대 중반부터 미리 검사를 받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년의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다

"이 나이쯤 다 그렇다"는 말은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치료는 되지 않는다. 갱년기는 견뎌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시기이다. 내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맞춤 치료를 시작한다면, 삶의 질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다.

작은 관리가, 인생 후반의 큰 변화를 만든다.



김 이숙
홍성의료원 7내과 과장

|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보기]와 같이 사물의 이름과 모음을 구분하여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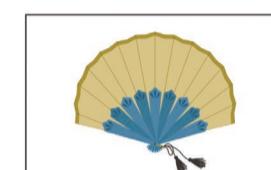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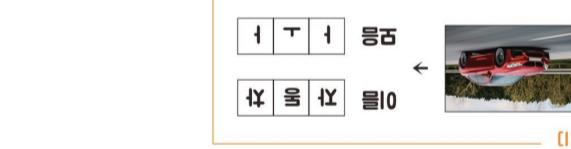
이름	자	동	차
모음	ㅏ	ㅗ	ㅏ



이름		
모음		



이름		
모음		



정답 : 1. ㅌ, 2. ㅋ, 3. ㅍ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좋은 커피의 상징 ‘모카’

커피향기

⑩ 예멘의 커피

한때 ‘모카’라는 상표가 붙은 커피를 즐겨 마셨다. 모카포트로 커피를 내려 카푸치노를 만들어 마셨고, 여행을 갈 때면 큼지막한 모카빵을 샀다. 모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딘지 모르게 맛이 있고 품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 모카 커피는 품질이 좋다. 명품 게이샤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3대 커피의 하나라는 명성까지 얻고 있었다. 값도 비싸다. 생두 가격이 웬만한 커피의 두 세배 수준이다. 모카 커피의 ‘모카’는 예멘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다. 어떻게 예멘의 한 항구가 좋은 커피의 상징이 되었을까?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다. 그 곳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가 이슬람 세계로 서서히 퍼져 나가던 16세기, 상인들은 에티오피아의 시장이나 농부로부터 커피를 사 흥해 건너편에 있는 예멘의 모카항으로 운반했다. 모카항에서 커피는 배에 실려 이곳 저곳으로 운송되었다. 16세기 중반에 커피문화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확산되어 커피수요가 증가하자 공급이 빨리 되었다. 상업적 커피 재배가 필요했다. 예멘 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싶었다. 모카항 인근은 황량하고 건조하여 커피재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내륙 산악지역은 물이 있고 계곡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아 커피재배가 가능했다. 그들은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관개시설을 만들어 커피나무를 재배했다. 나무를 세심하게 돌보고 수확 후의 가공도 체계적으로 해서 에티오피아 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16세기 말에는 예멘에서 생산된 커피의 수출물량이 에티오피아를 넘어섰다고 한다. 모카항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등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국제항구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였다. 당시 세계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2만톤이었는데 이 양은 모카항에서 거래되는 양과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17세기는 모카커피의 시대, 예멘 커피의 시대였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는 법, 18세기에 들어서며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커피가 재배되면서 예멘의 독점은 끝이 났다. 그러나 예멘의 농부들은 계속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했고 세계인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카커피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이념전쟁, 부족간의 대립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커피 유통이 어려워지자 많은 농부들이 커피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해 커피 생산이 크게 줄었다. 지금도 예멘은 내전 중이다. 그럼에도 모카커피의 영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멘 인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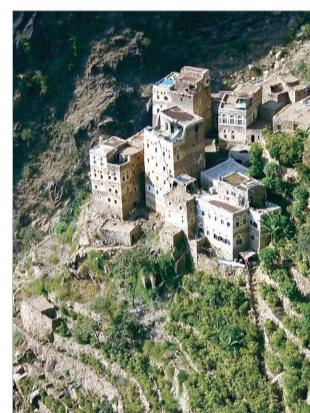
/최명돈 용연공방 대표(로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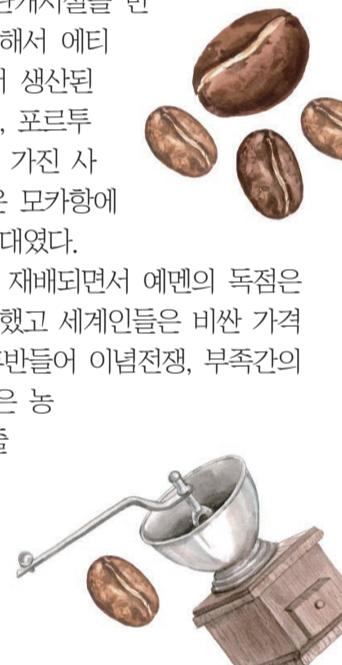
모카항.



예멘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예멘의 커피농장.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아코	머시닝센터조작원	2명	041-582-7958	연 4,000만원	논산	농업회사법인상경에프앤비(주)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명	041-742-3311	연 2,600만원
천안	(주)부경이엔지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041-621-2400	연 3,000만원	논산	엔케이건설(주)	굴착기 운전원	1명	041-741-9941	월 400만원
천안	(주)선영비앤씨	경리 사무원	1명	041-578-6008	월 230만원	보령	(주)삼부종합건설	경리 사무원(건설)	2명	041-932-7801	월 300만원
천안	엠비에스코리아(주)	기타 전자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1명	041-566-0099	월 320만원	보령	(주)대천리조트	회계 사무원	1명	041-939-3701	연 3,000만원
아산	심우기계	CNC 선반 조작원	1명	041-544-9060	연 4,500만원	보령	(주) 지엔케이미인항공기술	드론 조작원	1명	041-935-9877	월 230만원
아산	(주)승정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1명	041-544-6682	연 3,200만원	보령	보령친농연영농조합법인	배송·납품 운전원	1명	041-935-7790	월 250만원
아산	씨에스이(주)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정비원	2명	041-425-1457	연 4,000만원	계룡	계룡효센터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2명	042-551-5629	월 238만원
아산	(주)후리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544-4181	연 4,000만원	계룡	효성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	042-841-4800	월 230만원
당진	(주)실버프리	요양보호사	2명	041-356-1811	월 242만원	홍성	아이소산업(주)	기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	041-406-7710	연 3,000만원
당진	(주)천해환경산업(주)	하수·폐수 처리장치 조작원	3명	041-680-7340	연 3,500만원	홍성	명진환경산업(주)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1명	041-642-7766	월 250만원
당진	(주)삼흥테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356-7435	월 250만원	예산	(주)리빙키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2명	041-338-0504	연 3,400만원
당진	(주)태화정공	가스용접원	5명	041-357-6815	연 4,000만원	예산	(주)고려비엔피	의약품 생산기계 조작원	5명	031-478-5774	연 2,700만원
서산	(주)우진	공장 전기관리원	1명	041-689-9500	연 4,500만원	태안	(주)신흥기공	빌전기 설치·정비원	1명	010-2715-5645	연 3,400만원
서산	한강건설(주)	건축시공 기술자	1명	041-665-8411	월 300만원	태안	어송환경산업(주)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666-1957	월 270만원
서산	(주)사산테크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1명	041-663-6620	연 3,000만원	서천	기업과사람들(서천지점)	자재·구매 사무원	1명	041-953-8408	연 3,500만원
서산	(주)영재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665-9052	연 3,200만원	서천	(주)우리에프엔비서천공장	창고 관리원	1명	041-956-6670	연 4,000만원
공주	(주)제이에스이엔지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1명	041-854-4240	연 3,000만원	부여	농업회사법인(주)네오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명	041-835-9829	월 220만원
공주	(주)하나그로	기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명	041-418-9640	월 230만원	부여	(주)대오	회계 사무원	1명	041-830-0511	연 3,000만원
공주	(주)우먼패키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조작원	3명	041-858-9297	월 350만원	금산	(주)태영이엔비	기타 기술영업원	2명	010-4903-1872	월 300만원
공주	(주)에어로복코리아	재무·회계·경리 부서장	1명	041-855-1141	월 300만원	금산	(주)종우포장	배송·납품 운전원	1명	041-752-4601	월 250만원
논산	농업회사법인(주)천농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1명	041-736-2300	연 4,000만원	청양	(주)보민환경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943-7436	연 3,000만원
논산	(주)피드업	인사 사무원	1명	070-4681-6001	월 250만원	청양	농업회사법인(주) 동방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5명	041-943-2299	월 220만원

전국 맛집 음식·특산물 간편하게 내 식탁으로

청년 창업 ‘꿈과 도전’

⑤ (주)인생식당 김영남 대표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쉽게 연결·중개
독학으로 플랫폼 개발 벼티컬 커머스 런칭

낯선 여행지에서 접한 맛있는 음식이나 특산물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곤 한다. 그 특별한 기억을 손쉽게 되찾아 주는 플랫폼 ‘인생식당’이 2023년 9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곁으로 다가왔다.

인생식당 김영남(38) 대표는 창업 전 카드단말기 대리점에서 영업을 맡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 식당 사장들의 창업과 평업 등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원거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가능성, 여행지 맛집

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천안에서 맛집 중개 플랫폼을 창업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만든 인생식당은 단순한 식품 중개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누군가의 특별한 기억과 경험, 추억이 담긴 맛을 다시 만나는 여정인 만큼 더 많은 고객이 더 편리하게 감동적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개발자 출신인 김 대표는 아이디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실현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개발 역량이 부족한 데다 외부 도움을 받을 자본도 부족해 1년 넘게 독학으로 개발 과정을 배워 VI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다. 개발 과정을 통해 4건의 기술특허를 출원하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독학과 수업을 번갈아 하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인생식당 김영남 대표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이 수없이 들었지만,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이를 극복했다”고 회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개발한 플랫폼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고령의 생산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설계와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생산자 자동발굴 검증시스템, 검색과 구매과정 개선을 통한 고객 중심 여정을 지향한다.

특히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우수기업으로 졸업한 뒤 지난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JB벤처스 배치프로그램 선

정, IP나래 지원기업 선정, 매쉬업벤처스 투자프로그램 상위 10% 선정 등 성공 가능성에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졌다.

런칭 첫해 천안 호두과자점과 청주 만두가게 점포 중개 등을 시작으로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엔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40여곳으로 늘어난 맛집 메뉴를 제

공하면서 매출액이 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전용앱을 개발해 전국 각지의 맛집 메뉴를 확보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10억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김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저의 핵심 가치는 고객 만족”이라며 “생산자는 온라인 판매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은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 경험을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커머스를 넘어 지역의 맛과 문화를 전달하는 경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며 “앞으로 더 멀리 더 깊게 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인생식당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도정신문팀



둘이 260여회…생명 살리는 부부의 헌혈 데이트

당진시 박근서·차지연 씨 부부

10년 넘게 헌혈로 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박근서 팀장과 그의 아내 차지연 씨가 주인공이다.〈사진〉

1997년 결혼한 박근서 팀장과 차지연 씨는 서로가 가끔은 알미울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애정으로 서로의 결을 지켜오고 있는 든든한 동반자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던 박 팀장은 10여년 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 마음은 부부가 함께 헌혈이라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박 팀장은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내에게 함께하고 제안했더니 승낙해 줘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2014년 처음으로 함께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면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2017년부터는 2주 간격으로 가능한 혈장 헌혈로 전환해 더 많은 생명

을 살리는 데 앞장섰다.

이들 부부는 헌혈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마라톤 대회와 등산을 함께 하며 체력을 다져왔고, 최근까지 산림 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95곳을 함께 오르며 인생의 도전도 공유하고 있다.

꾸준히 이어온 헌혈은 값진 성과로 이어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2017년 은장, 2019년 금장, 2022년에는 명예장을 수상했고, 100회 이상 헌혈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헌혈증도 꾸준히 모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50매씩 기부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당진신문 박수진 기자〉

“10년의 인연, 내일의 참 좋은 인연”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孝잔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에서 운영하는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인연, 내일의 참 좋은 인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5월 8~9일 양일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사진〉



주연을 돌아보는 주연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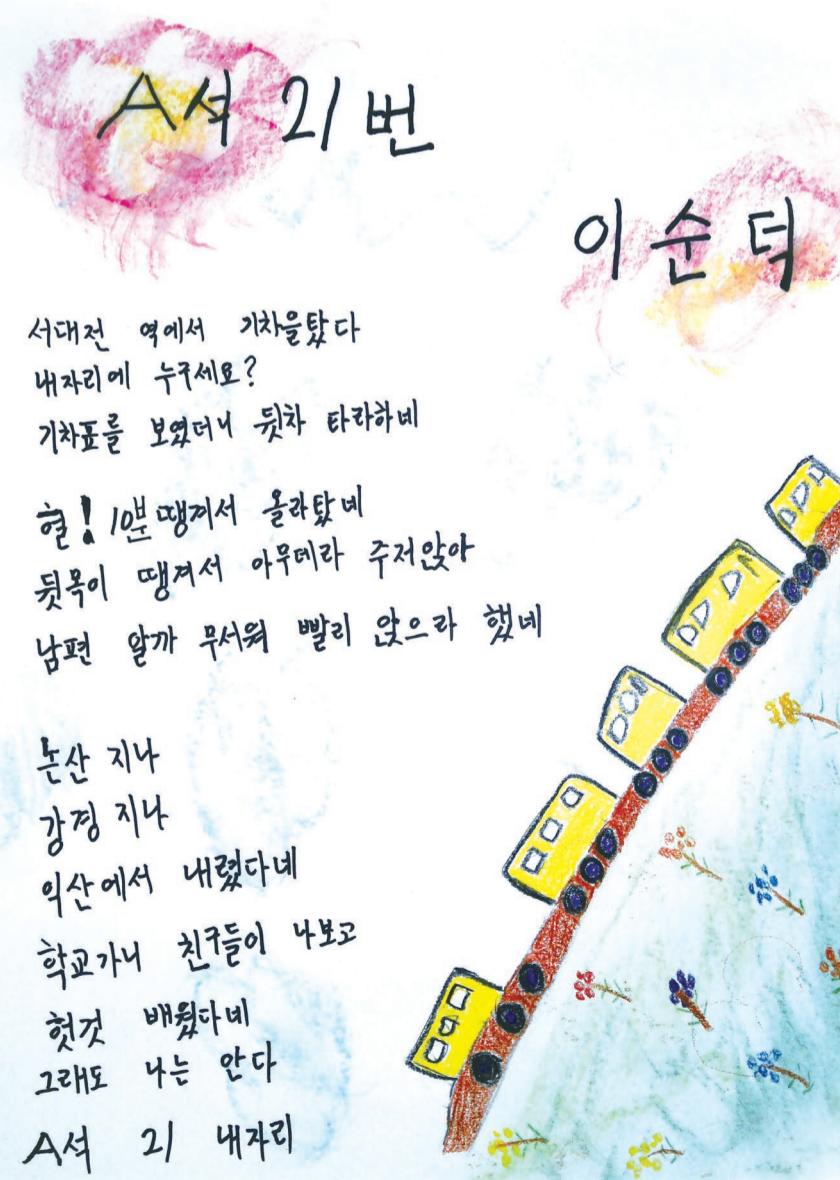
기념식에서는 복지관의 지난 10년

을 함께한 노인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어버이날 기념 무료 급식 제공, 어르신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유익한 영화가 상영됐다.

이후 열린 충남 노인복지관 탁구 대회는 한국탁구의 전설 현정화 선수가 특별게스트로 참석한 가운데 충남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 선수들이 출전해 우정과 건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금강뉴스 신용희 기자〉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충남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이순덕 학습자 'A석21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어떻게 다른가

내포칼럼



최재을
충남대 명예교수

천연 벌꿀에서 사양 벌꿀보다 당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 성분의 함량이 많은 것은 천연 벌꿀에 꽃가루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천연 벌꿀(자연 벌꿀, 벌꿀)은 꿀벌이 꿀샘에서 꿀을 채집하여 거울의 먹이로 저장한 것이다. 저장된 꿀은 꿀벌의 효소에 의하여 자당(설탕)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수분이 증발하여 당도가 80% 가까이 증가한 끈끈한 액체이다. 꿀벌은 꿀뿐만 아니라 꽃가루를 가져오므로 꿀 1g당 3~20만 개의 꽃가루가 들어있다.

천연 벌꿀의 종류는 꿀을 채집한 꽂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꿀 70%가량이 아카시아꿀이다. 아카시아꿀은 연노란색으로 달콤한 향이 있고, 밤꿀은 짙은 갈색으로 달콤하고 씹짜름한 맛이 있으며 향이 강하다. 잡화꿀은 여러 종류의 야생화 등에서 채집한 꿀로 대부분이 갈색이며 맛과 향이 일정하지 않고 강한 것이 특징이다.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도 식품으로 인정되기 이전에는 설탕물이나 시럽으로 제조한 꿀, 천연 벌꿀에 설탕이나 색소 등을 첨가한 꿀과 함께 가짜 꿀이라 하였다. 가짜 꿀은 천연 벌꿀의 약 1/3의 가격으로 유통되지만, 향, 맛, 색깔 등으로는 가짜 꿀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가짜 꿀을 천연 벌꿀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탄소동위원회의 분석 때문에 천연 벌꿀과 가짜 꿀의 구분이 가능해지면서 가짜 꿀의 단속도 쉬워졌지만, 탄소동위원회의 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꿀을 구매할 때는 꿀을 담은 용기 뒷면에 표시된 탄소동위원회를 확인하여 천연 벌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탄소동위원회 -23.5도 이하이면 천연 벌꿀, 탄소동위원회가 커질수록 설탕 사양 꿀의 함량이 많은 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짜 꿀의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행위를 근절하고자 2016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공시하였다. 벌꿀에 설탕을 급여하여 생산한 사양 벌꿀도 공시 규격에 맞으면 식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양 벌꿀은 식품 유형을 '사양 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 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농촌진흥청,

2024)에 의하면 아카시아꿀 100g당 당류는 74.6g, 아미노산 79mg(17종), 비타민 0.6mg(7종), 무기 성분 27.0mg(9종)이다. 밤꿀 100g당 당류는 67.4g, 아미노산 216mg(18종), 비타민 3.7mg(10종), 무기 성분 285.9mg(12종)으로 당류를 제외하면 아카시아꿀 보다 영양성분의 함량이 많다.

천연 벌꿀의 영양성분이 다양한 것

나 감칠맛을 더하여 조미료로도 설탕보다 우수하다. 요리에 사용할 때는 설탕 10g에 대해 꿀 7~8g이 기준이 되며, 조림이나 드레싱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면 다른 맛으로 낼 수 있다.

벌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섭취 후 신속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운동 전후나 피로가 쌓였을 때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천연 벌꿀은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있어 상처에 바르면 상처 부위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하며, 흉터 형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화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따뜻한 벌꿀 물은 목구멍의 자극을 줄이고 마른기침을 완화하여 목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벌꿀은 피부 관리 분야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피부감염에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균들에 효과가 있고, 피부 습도 유지, 혈관증식, 피부조직재생 등을 조장한다고 한다.

1999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꿀을 피부관리 약품으로 인정하였고, 독일에서도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꿀의 보습 효과는 건조한 피부나 습진, 마른비듬과 같은 피부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겨울철 건조해서 입술이 트고 각질이 일어날 때, 자기 전에 입술에 꿀을 바르고 랩을 씌우면 아침에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을 만날 수 있다.

이상의 민간요법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천연 벌꿀에서 얻어진 효능이다. 사양 벌꿀에는 당류 함량은 많지만, 아미노산, 비타민 및 무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적어 천연 벌꿀의 효능을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양 벌꿀에 관한 효능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천연벌꿀엔 꽃가루 포함돼 당류·아미노산·비타민 등 풍부
꿀벌에게 설탕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도 식품…가격은 1/3
탄소동위원회 분석으로 천연과 사양벌꿀 구분 가능해 져

”

은 천연 벌꿀에 섞여 있는 꽃가루 (국가표준식품 성분표, 농촌진흥청) 100g 당 당류 40.3g, 단백질 20.8g, 총 아미노산 16.2g(19종), 무기 성분 1.3g(12종), 비타민 56.6mg(23종)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가루의 영양성분은 밀원이 있는 지역과 꽃가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천연 벌꿀의 영양성분의 함량도 차이가 있다.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지만 열량이 낮고 요리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천연 벌꿀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 성분, 항산화 성분은 소량이지만, 에너지 생산, 피부 건강 유지, 신경계 기능 강화 등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무기 성분 중에는 신체의 전해질 균형 유지, 뼈와 치아의 건강 유지, 신경계와 면역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바지하며, 적혈구의 형성과 산소 운반 등의 역할을 한다.

스튜디오 촬영 2

요즘 결혼

촬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지쳐있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새벽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여섯 시 반부터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과 화장을 받았다. 무려 세 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니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생전에 두 번의 결혼을, 사후에 한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화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셨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화장이 마무리될 때쯤에 헬퍼 이모님이 오셨다. 전날 미리 받아온 예복 입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 예복을 입고 나면 일종의 거동불편자가 되기 때문에 도움은 계속 필요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고 나서도 준비는 끝나지 않았다. 스태프분들의 간식을 행겨야 한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통은 돈을 쓰는 사람이 대접받지 않나? 또 어느 쪽이 됐든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 게다가 촬영은 오전 열 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굳이 뭘 먹을 필요가 없는 시간이다. 그래도 그냥 배달을 시켰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하게 가고 싶었다.

촬영은 시작부터 불편했다. 소

파에 앉은 채로 포즈를 취해야 했는데, 소파는 지나치게 푹신했다.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무거웠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엉덩이가 푹 꺼지고,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사진사는 나에게 상체를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어깨너비와 무릎의 각도까지 통제했다. 마치 체별이라도 받는 것 같았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여서, 잠시 자세를 풀고 힘들다고 말했다. 사진사는 “원래 힘들어요. 이거 다 끝나야 집에 가요.”라고 밀했다.

그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다. 혹시 간식을 준비하는 일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보여주는 자그마한 의식 같은 것이었을까? 마음 속에서 작은 의심이 쌩텄다.

서둘러 촬영을 마치고 싶었을 뿐,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불평은 접고, 불편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미소가 점점 어색해졌다. 사진사는 내 포즈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행복해하세요!” 그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내 진심은 점점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진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모



양이다.

“여기애 들인 돈을 생각하세요. 제대로 안 찍으실 거예요?”

나는 이 촬영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여자친구가 알아서 준비했고, 나는 그저 따르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런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았다.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촬영이 시작된 지 세 시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사진사에게 얼마나 더 남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 두 시간은 더 찍어야 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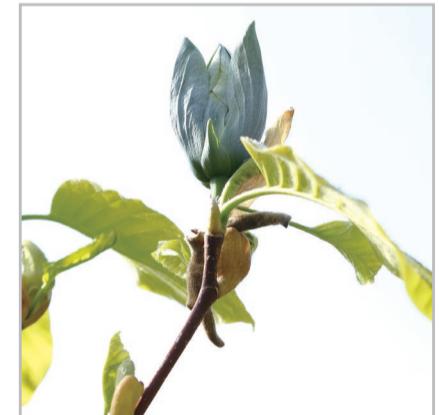
그 대답을 듣고 나는 말했다. “그럼 저는 더 찍을 수 없습니다.”

황인선 작가

햇살 아래 영롱한 푸른빛 꽃

식물이야기

황목련 '패트리어트'



황목련 '패트리어트'

▲식물 생육환경

내한성이 강하고, 흙만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된다면 우리나라 기후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품종 이름의 유래

'패트리어트'라는 품종명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품종 선발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다. 미국 육종가들이 1976년을 기념하여 개발한 'Little Girl' 시리즈 목련들과 마찬가지로, 이 품종도 탄생 배경에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황목련은 성숙한 꽃에서 녹청색(bluish-green) 빛을 띠는 드문 특성을 지녔는데, '패트리어트'는 이 특징을 더욱 또렷하게 살려내 꽃봉오리에서부터 푸른빛이 돋보이게 만든 결과물이다.

5월 중순 ~ 초여름에 개화하는 이 품종은 푸른빛에 흰색 분이 묻어난 듯한 꽃을 피워, 햇살을 머금은 정원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꽃은 작고 캡 모양으로 피어나 다른 목련 보다 단아하다.

여름을 앞두고 피어나기에 앞과 함

지방채무 대응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2025 상반기 재정토론회 개최 “예산정책 책임 강화 전기”

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5월 14일 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를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 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회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 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함께,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



충남도의회는 5월 14일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5월 13일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 48명과 지도교사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서산 명지중 지방의회 역할 경험

13일 ‘충남도의회 의회교실’ 개최 2분발언 및 조례안 처리 찬반토론

충남도의회는 5월 13일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 48명과 지도교사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식 섭취 줄이기’,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교복 데이 지정에 관한 조

례안’과 ‘교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모임

다문화 학생 교육 맞춤형 지원 협의

유성재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5월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차 연구모임을 가졌다.(사진)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천안5)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의 ‘다문화 학생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주제 발표와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의 ‘미래학교’에 대한 발표에 이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유성재 의원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지민규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지민규)은 5월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충남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민규 의원(아산6)은 “단순한 이론적 접근



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알려드릴 의회 용어는?

‘시민권’이란 무엇일까요?

시민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해요!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부터 시민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조항,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등이 있어요.

시민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지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지역 현안 해결 최선”




박정식(아산3)



유성재(천안5)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노인들의 건강 유지, 정서적 안정,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충남도의 경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심지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개선하고,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

본 의원은 정치입문 이전,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서 취약계층 지원과 병원 업무를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복지 단체,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돌봄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방문을 돋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시간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대화와 소통, 변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아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개인이나 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도정 정책에 반영해 소외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피고, 연차별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도민의 미래를 위한 동행

주민의 대표로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도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해법을 구상하는지 질문을 통해 들어본다.

■ 현재 역점 두고 있는 정책 활동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천안시 성환읍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지역대학 등과 연계를 통해 산업·상업·주거·업무기능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성환 원도심에 핵심적인 변화를 이끌어 북부생활권의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화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 또 거봉포도로 유명한 입장면은 마땅한 행사 장소와 주민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거봉축제와 천안을 홍보 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있다면?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유성재TV)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대한 동영상 인터뷰 진행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 또한 충남도, 도교육청, 천안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5년 5월과 7월에 있을 재공모 준비를 위해 천안시와 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관된 목표를 향해 협력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 의원들과는 물론 지역 시도의원들과도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절실히 체감한다.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다문화교육, 농어촌 학교 활성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성환 도시재생사업, 입장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직산중학교 개교 등 숙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지역민원상담소 기능과 역할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창구!

충남도민의 고충 민원 상담, 입법 정책건의 등
도민 의견수렴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 수렴된 도민의견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테이블!

충남도민, 공무원, 각종단체 등이 상담관과
지역발전을 논의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

도의원 원격지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거점



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041-554-0008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천안2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당진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천안3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041-574-0007	금산	금산군 금산읍 후끈천길 53, 2층	041-751-5555
공주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보령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아산2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1, 2층	041-546-1101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서산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041-665-1235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청1길 20, 6층	041-333-9606
논산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 1층	041-67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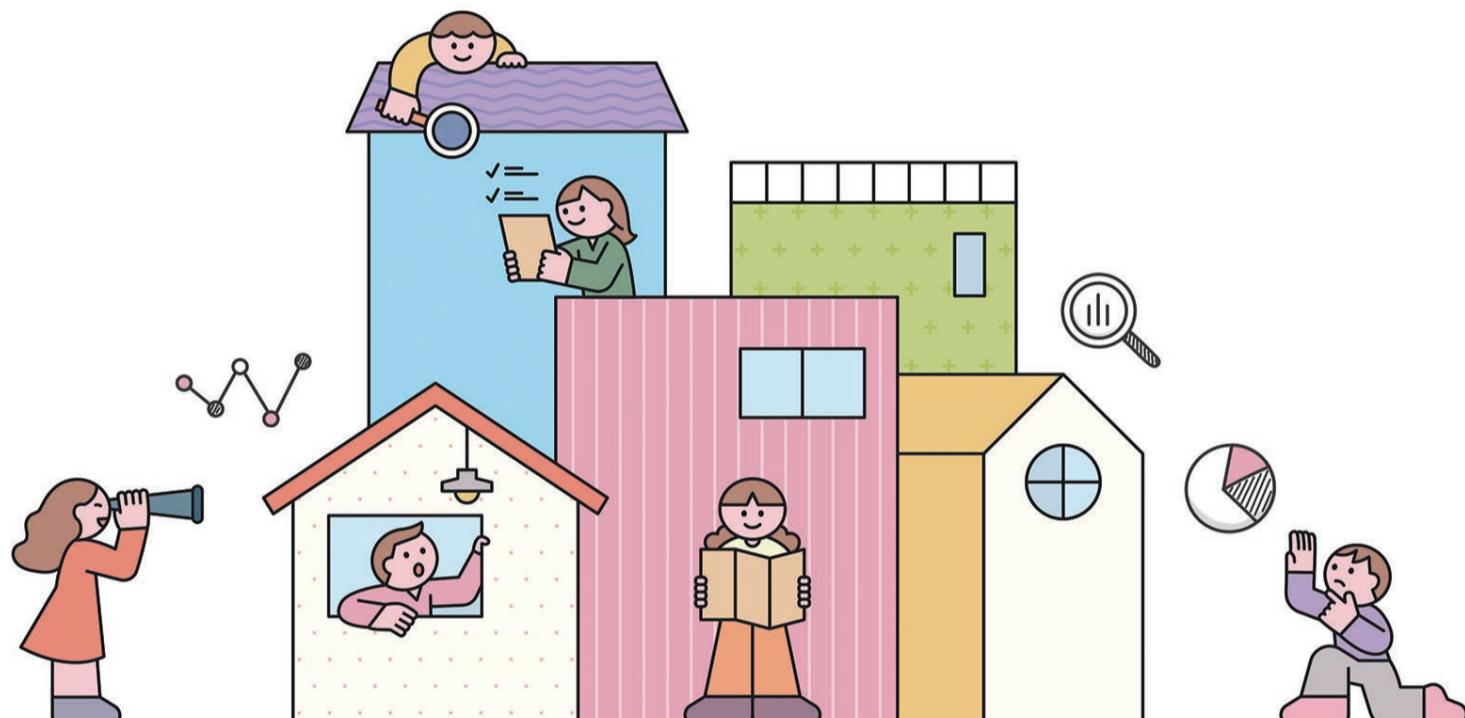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5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 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인터넷 조사 2025년 5월 9일 ~ 5월 20일 방문면접조사 2025년 5월 14일 ~ 6월 4일

조사대상

도내 15,000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응답혜택

소정의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총 11개 분야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 통계법 제 18조에 근거한 조사로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설계/분석



조 사

